

[국어생활 논단]

# ‘한글’의 作名父는 누구일까

— 이종일 · 최남선 소작설과 관련하여 —

고영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 1. 들어가기

개화기 이래로 한국문자의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는 ‘한글’이라는 말은 누가 지었을까. 한힌샘 주시경이 지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고 육당 최남선이 지었다는 설도 없지 않았다. 그러다가 나는 지난 세기 80년대를 전후하여 얼굴을 내민 자료에 근거하여 「‘한글’의 유래에 대하여」란 글을 써서 중학교 시절 나에게 말문을 흥미 있게 가르쳐 주신 백석(白石) 조문제(趙文濟) 선생(전서울교육대학교수)의 회갑기념논문집에 기고한 바 있고, 이를 나의 어문 논설집 「통일시대의 어문문제」(도서출판 길벗, 1994)에 옮겨 신기도 하였다. 위의 글은 설득력이 강한 탓이었는데는 모르지만 여러 대학의 대학국어교재에도 실린 바 있다. 이 글을 쓰고 난 뒤 나는 돌아가신 난정(蘭汀) 남광우(南廣祐) 박사로부터 ‘한글’은 주시경에 앞서서 19세기말에 이종일(李鍾一)이 지었다는 정보를 얻었다. 또 수년 전 임흥빈 교수는 대구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의 기관지 『한국학논총』 23(1996)에 기고한 「주시경과 ‘한글’ 명칭」이란 글에서 주시경 작명부설(作名父說)을 뒷받침한

나의 견해를 부정하고 ‘한글’의 작명부가 최남선이라는 해묵은 학설을 다시금 들먹였다.

이미 ‘한글’이라는 말이 오늘날 한국문자의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당에 그 작명부를 굳이 캐어 낼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으나 사정이 그리 간단치 않다. 오늘날 한국의 나라노래[國歌]의 작사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듯이 ‘한글’의 작명부를 확정하는 일 또한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하는 나라노래는 대한민국 사람만이 부르고 그것도 국경일이나 공휴일과 같은 공적인 행사에서만 불려지는 데 대하여 ‘한글’은 대한민국의 국경을 넘어 국외의 동포사회는 물론 외국인 사회에까지 침투되고 있는 한국문자의 고유명사라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

오늘날 ‘한글’로 불리는 한국의 문자는 창제 당시에는 공식적으로는 ‘正音’이라 불렸으나 이는 잠시뿐이었고 ‘諺文’이란 말이 조선조 500년을 통하여 사용되어 왔으며, 갑오경장을 계기로 하여 한국어는 ‘國語’로, 한국문자는 ‘國文’으로 불렸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국권이 빼앗김에 따라 한국어는 ‘조선어, 조선말’로, 한글은 ‘諺文, 조선문, 조선글’로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잃어버린 국권(國權)과 모국어(母國語)를 되찾겠다는 우국지사들은 ‘國語’와 ‘國文’에 대체될 수 있는 말을 다각도로 모색하다가 결국 ‘한글’이란 말을 선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실 한국어를 대내적으로 일컬을 때에 ‘국어’나 ‘우리말’이란 말을 사용한다면 한국문자는 ‘한글’보다는 ‘국문’이나 ‘우리글’이란 말이 더 어울린다. 실제로 ‘우리글’과 ‘우리말’이 개화기부터 많이 쓰였고 지금도 후자의 경우에는 국어를 대신하는 일이 많다. ‘한글’의 ‘한’이 ‘대한’의 ‘韓’과 직접 연관된다면 대외적 용법의 한국어는 마땅히 ‘한말’이라고 불려야 한다. 실제로 옛 대한제국시대에는 외국인들 사이에 ‘韓語’란 말이 통용되고 있었고 ‘한말’이란 말도 그런 대로 사용되었다. ‘韓語, 한말’이란 말은 요즈음의 ‘한국어, 한국말’과 같은 뜻을 머금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는 한국문자를 일컬을 때 대내적이건 대외적이건 ‘한글’이란 말을 통용하고 있으며 이 말은

한국의 언어를 지칭할 때에도 사용되는 일이 있다.

이곳에서는 남광우 박사와 임홍빈 교수가 주장하는 ‘한글’ 작명부(作名父)의 비주시경설보다는 주시경 소작설이 훨씬 설득력이 있고 신빙성이 짙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논증해 보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나는 그 사이 알려지지 않았던 ‘한글’을 비롯한 한국의 언어와 문자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뜻있는 사람들의 질정(叱正)을 구해 보고자 한다. 임홍빈 교수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작명부’란 말이 좋지는 않으나 관습적으로 쓰여 오던 말이어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되 뒷날 적당한 어휘를 대체하기로 한다. 그리고 자료수집에 있어서는 김민수 선생(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이재철 선생(단국대학교 명예교수)과 고려대학교 국문과 박사과정 박미영님의 협조가 컸음을 밝혀 둔다.

## 2. ‘한글’의 비주시경 작명부설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먼저 남광우 박사의 이종일 작명부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한글’을 이종일이 처음 지었다는 견해는 남박사가 『성기열박사화갑기념논총』(1989)에 기고한 「훈민정음의 재조명」에 나타나 있다.

이종일(1858~1925)은 개화사상가로서 19세기말에 『제국신문』을 창간한 바 있고, 뒤에 「論國文」(1908)이라는 논설을 남기기도 하였으며, 3.1운동 때에는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 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반열에 들기도 하였다. 이종일이 남긴 『묵菴備忘錄』(일명 『沃坡備忘錄』)은 일기체의 자료로서 70년대 후반에 역사학자 이현희 교수가 『韓國思想』 16(1978)에서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권1 광무(光武) 2년(1898) 7월 4일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편의상 남 박사의 번역을 그대로 가져오되 필요한 부분은 괄호 안에 원문을 밝힌다.

나는 말하기를 사실 현세를 따지고 보면 대한제국의 시대인 까닭에 나의 의견으로는 제호를 제국신문이라고 붙이면 어떨까 한다. 듣는 사람들이 속의한 끝

에 모두 좋은 명칭이라고 말하여 이에 제국신문으로 결정하고 제호를 한글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였더니 역시 모두 좋다고 하였다. 그래서 한글전용의 신문을 발간할 것을 결정지었다.(然則한글專用爲主發刊決定也矣).

(밑줄은 글쓴이가 칩)

위의 대목은 신문발간의 자금을 댄 이종일이 유영석, 이종면, 장효근 등과 발간사업을 숙의한 끝에 신문의 이름은 ‘제국신문’으로 정하되 ‘한글’로만 쓰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어 8월 1일자 비망록에는 부녀자를 위하여 ‘純國文(한글)’으로 신문을 만들자는 이종일의 의견에 모두 찬성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실제로 같은 해 8월 10일에 창간된 제국신문은 신문이름은 물론이고 기사도 모두 한글로만 되어 있다.

이종일의 ‘한글’ 작명부설은 자신의 비망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광우 박사의 견해와 같이 ‘한글’ 작명부의 최초의 영예를 짊어진다. 당시의 한국의 국호가 ‘大韓帝國’이었던 만큼 종전에 사용하여 오던 ‘언문’을 대체하려면 ‘國文’이나 ‘韓文’, 나아가서는 ‘한글’이란 이름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종일이 사용한 ‘한글’이 어느 정도 일반의 동의를 얻어 ‘언문’이나 ‘국문’을 대체하여 통용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탐색해야 한다. 이종일은 앞서든 「論國文」이라는 논설을 『대한협회회보』에 기고하여 국문의 우수성을 선양하고 그 진흥에 힘써야 한다는 논지를 편 바 있지마는 자신이 1898년에 사용하였던 ‘한글’을 되살려 사용한 자취를 찾을 수 없다. 이종일이 ‘한글’의 최초의 작명부이기는 하지마는 발전적으로 사용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이종일의 기록이 1970년대 중반에 비로소 얼굴을 내밀었기 때문에 이종일의 ‘한글’이 당시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으로 최남선이 ‘한글’의 작명부라는 이야기는 학범 박승빈의 『한글 맞춤법통일안비판』(1936)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다. 박승빈은 ‘한글’을 ‘조선어’에 대당시킨 조선어학회의 처사가 잘못되었다고 비판을 가하고 ‘한글’은 ‘언문’의 대용어라 해석하면서 ‘한글’의 작명부가 최남선임을 증언하고

있다. 그 내용을 현대맞춤법으로 고쳐 적으면 다음과 같다.

최남선씨 경영 光文會 내에서 주시경씨가 조선어를 연구하던 당시에 주씨는 한자 전폐론자로서 또 조선문을 존중하고자 하는 감정으로 「언문」의 명칭을 버리고자 하여 그 대용어를 고색(考索)하는 중에 최씨로부터 「한글」이라고 명명하여 주씨도 이에 찬동하여 이후로 사용된 말이라.

박승빈이 내세우는 최남선 소작설을 뒷받침하는 증언은 최남선 자신의 글 가운데서도 목격된다. 1946년에 나온 『조선상식문답』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이를 쉽게 옮겨 보기로 한다.

윙희 말년 조선 광문회에서 조선어 정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에 조선문자를 조선어로 부르자면 무엇이라고 함이 적당할까 하는 문제가 생겨 마침내 세계 문자 중의 가장 거룩한 왕자란 뜻으로 ‘한글’이라 부르자는 말이 가장 유력하니 ‘한’은 大를 의미함과 함께 韓을 표시하는 말임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상 두 사람의 증언을 종합하면 박승빈은 ‘한글’을 최남선이 짓고 주시경이 동의한 것으로 보았으며, 최남선은 구체적으로 작명부를 지칭하지 않고 조선광문회에서 자연스럽게 지어진 것으로 증언하였다. 임홍빈 교수가 최남선 작명부설을 다시 들먹인 것은 박승빈과 최남선의 소론이 당대인의 진술이란 점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역사 서술에 있어서는 임교수의 소견과 같이 당대인의 기록이나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짙다. 그러나 당대인이었던 두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한글’의 작명부를 확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도사리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최남선은 조선광문회를 세워 주시경과 함께 사전편찬을 도모하였고, 주시경이 작고한 뒤에는 「周時經先生歷史」를 집필하고 「한글과 周時經先生」이라는 연제(演題)로 강연을 한 바 있으며, 주시경의 유업의 하나였던 한글모(조선언문회)의 회장을 맡는 등 유지 계승에 표나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그 뒤 최남선은 주시경학과와 결별하여 박승빈 쪽으로 전향하였다. 김민수 교수의 『주시경연구』(증보판)(탑출판사, 1986)에 실려 있는 『『말모이』의 편찬에 대하여』라는 글을 보면 육당이 1927년경에 박승빈 중심의 계몽단체였던 계몽구락부에 가담하여 통재(統裁)의 직책을 띠고 사전 편찬에 착수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최남선의 전향에 대하여는 일성자(一聲子)라는 사람이 『四海公論』(1938. 7)에 기고한 「한글·正音 對立小史」를 통하여 그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이 글은 『역대한국문법대계』 3-23(1986, 769쪽)에 원문대로 실려 있어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아직 한번도 주목되지 않았다. 위의 글에는 먼저 조선어학회의 기관지 『한글』과, 조선어학연구회의 기관지 『正音』의 표지를 위 아래에 배치하고 한글과와 정음과의 대립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글쓴이 일성자는 한국어문운동이 1897년 주시경 중심의 국문동식회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먼저 ‘한글’의 작명부를 최남선으로 못박고 있다. 이를 쉽게 풀어 보기로 한다.

주씨(주시경을 가리킴—글쓴이)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 듯이 일찍부터 한자 전폐론을 부르짖고 최남선씨와 더불어 광문회에서 비로소 조선어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분이다. ‘諺文’이 ‘한글’ 즉 ‘큰(‘한’은 ‘큰’의 고어) 글’로 개칭된 것이 이때 최남선씨의 명명에 의한다.

이곳에서 ‘한글’을 최남선이 명명(命名)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든 박승빈의 증언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한문 혼용에다가 철자법 등을 고려할 때 글쓴이 일성자는 주시경학과보다는 박승빈학과에 기울어져 있었고 그런 점에서 박승빈의 저술을 숙독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어 글쓴이 일성자는 조선어학회와 조선어학연구회의 창립에 관련된 역사를 훑어 본 바탕 위에서 최남선이 주시경학과와 결별하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배풀었다. 역시 쉽게 풀어 보인다.

그런데 이 대립이 어디에서 생겼는가 하면 표면상으로는 물론 학설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전 조선광문회 시절의 동지였던 주시경씨와 최남선씨가 분리되면서 사실상 대립의 씨가 배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씨가 그뒤 계명구락부의 간부가 되었고 그곳에서 조선어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고 또 조선어학연구회가 그곳의 회원으로 이를테면 윤치호, 임규, 기타 제씨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결국은 단순한 어학계의 대립이 아니라 더 깊은 기초를 띤 그것의 연장이라 볼 수 있는 점이 적지 않았다.

글쓴이 일성자는 한글쪽이 야당적인 데가 있는 반면 정음쪽이 여당적인 점이 없지 않다고 꼬리를 붙였다. 앞에서 우리는 최남선이 1927년경에 박승빈의 계명구락부에 가담하여 사전편찬을 시작하였음을 본 바 있는데 일성자의 증언과 일치하는 것이다.

육당이 박승빈학파쪽으로 전향한 사유는 현재의 글쓴이로서는 잘 알 수 없지마는 사전편찬 문제로 주시경학파와 의견이 맞지 않아 그로부터 대립의 불씨를 안게 되지 않았나 한다. 그렇다면 박승빈이 1936년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비판할 때에 ‘한글’의 작명부가 최남선이라고 증언한 것은 위증(僞證)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사실상 당시 조선어학회가 애용하고 있었고 이미 일반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던 ‘한글’이라는 이름도 자신과 행보(行步)를 같이하고 있는 최남선의 소작이라는 사실을 환전(喧傳)하기 위한 작위(作爲)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 것은 최남선의 증언에서 자기가 작명부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설사 박승빈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1910년 이후 최남선의 행적에서 한국문자의 이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심을 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기껏해야 1913년 9월에 창간된 『아이들보이』지(誌)의 「한글풀이」란에서 처음 그 실용을 시도하였을 뿐이다. 이 잡지의 이름도 글쓴이에 게는 조어의 방식을 볼 때 주시경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보겠지만 주시경은 최남선보다 먼저 ‘한글’이라는 이름을 두 번이나 사용하였다.

### 3. ‘한글’의 실질적인 작명부는 여전히 주시경이다

‘한글’의 작명부가 한헌샘 주시경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설한 사람은 환산 이윤재가 아닌가 한다. 이윤재는 『新生』 2권 9호(1929)에 기고한 「한글 강의」의 첫째 강의에서 ‘한글’의 뜻과 유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 글은 『역대한국문법대계』 3-23(344쪽)에 실려 있다. 환산은 먼저 한국문자에 대한 역대의 명칭을 일瞥(一瞥)하고 특히 ‘國文’은 한국시대 정부에서 제정한 말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베풀었다.

이 말이 생기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돌아가신 주시경(周時經) 선생이 「한글배곧」이란 것을 세우니 이것이 「조선어강습소」란 말입니다. 그 뒤로 조선 글을 「한글」이라고 하게 되어 지금까지 일컬어온 것입니다.

이윤재는 ‘한글’이 주시경이 세운 ‘한글배곧’에서 유래한다고 하였다. 이 증언은 ‘한글’의 작명부가 주시경임을 함의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발설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외솔 최현배도 그의 『한글갈』(1942/1961 : 52쪽)에서 환산과 비슷한 견해를 표출하였으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편찬한 『민족문화대백과사전』(1991)에서도 한글의 작명부(김민수 집필)가 주시경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1992)의 ‘한글’ 표제항에는 남한과는 달리 ‘한글’의 작명부를 주시경을 비롯한 주시경학파의 소작으로 단정하였다.

큰 글 또는 바른 글이라는 뜻으로 《조선인민의 고유한 민족글자 <훈민정음>》을 달리 이르는 말. 20세기 초 우리나라에서 국문운동이 벌어지는 과정에 주시경을 비롯한 국어학자들이 《정음》의 뜻을 고유어로 풀어서 붙인 이름이다. 1927년에 잡지 《한글》이 나오면서 점차 사회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남한에서는 ‘한글’의 작명부가 주시경 한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북한은 주시경을 비롯한 학자들이라고 단정하였으니 집단 작명부설을 주장하고 있



는 것이다. 박승빈의 최남선 작명부설과 주시경의 동의설을 의식하였을 수도 있고 주시경 제자들 이데면 김두봉과 정렬모 등의 증언을 토대로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한글’의 ‘한’이 ‘韓’과 관련된다는 주석은 피하였다. ‘大韓民國’의 ‘韓’과 일치됨을 피하기 위한 작위가 아닌가 한다.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한글’의 ‘한’이 ‘正, 大’를 뜻한다는 것은 ‘크다’의 옛말 ‘하다’의 관형사형 ‘한’과 일치하기 때문에 후세에 부연시킨 의미이다. 이런 방식의 뜻풀이는 자칫하면 2세들에게 국수주의 사상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韓’과 관련시키는 뜻풀이만을 지향해야 한다.

내가 주시경을 ‘한글’의 작명부로 주장한 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주시경은 국어연구의 시작 단계서부터 많은 경우 우리말은 ‘國語’로, 우리글은 ‘國文’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다가 1910년의 국권상실 직전부터 작고하기까지 전문용어와 각종 서식의 고유어화를 꾸준히 도모하였다. 먼저 『보충친목회보』(1910. 6)에서 ‘國語’를 ‘한나라말’, ‘國文’을 ‘한나라글’로 바꾸었다. 이곳의 ‘한’은 대한제국의 ‘韓’과 일치한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1911년 4월에 나온 제2회 국어연구학회 강습소 졸업증서의 인장에 ‘한말의 힘곳’이라는 글귀가 나온다, 이곳의 ‘한말’은 앞의 ‘한나라말’에서 ‘나라’를 빼고 지은 말임에 틀림없다. 이는 ‘우리나라말’과 ‘우리나라글’에서 ‘나라’를 빼고 ‘우리말’과 ‘우리글’을 만드는 것과 절차가 같다. ‘국어’를 ‘한나라말’로 삼기에는 너무 길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짙다. 증서의 발행기관은 ‘한’을 빼고 ‘말의 힘곳’이라 적었다. 이는 물론 일제 당국의 눈을 피하고자 하는 작위로 보인다. 앞의 ‘한나라말’과 함께 ‘國語講習所’를 고유어화한 것이다. 옛 대한제국시대에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韓語’라는 말이 통용되었다고 하였는데 주시경은 1911년에 ‘국어’를 ‘한말’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하였다.

사실 국문을 ‘한글’로 지어 부르면 ‘국어’는 이에 유추되어 ‘한말’이라는 말이 저절로 만들어진다. 물론 반대의 절차도 가능하다. 1920년대 중반 가가날(‘한글날’의 전이름)을 맞아 나온 조종현(趙宗玄)(1906~1989)의 동시 「한말 한글-9월 29일을 맞으며」를 보면 ‘한글’과 ‘한말’이 나란히 사용되고 있

다. 이는 두 개념의 어휘가 상관성을 띠고 만들어질 수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고 또 당시에 ‘한글’과 함께 ‘한말’을 사용하는 인사가 있었다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어서 전문을 공개한다.

방실방실 어린이 재미스럽게  
말이 편다 소 편다 말은 하여도  
하는 이 말 이름을 모른다 해서  
‘한말’이라 이름을 일러 줬지요

방실방실 어린이 얌전스럽게  
가까거겨 책 들고 글은 읽어도  
읽는 그 글 이름을 모른다 해서  
‘한글’이라 이름을 갈쳐 줬지요

쉽고 쉬운 우리글 ‘한글’이랴오  
좋고 좋은 우리말 ‘한말’이랴오  
방실방실 어린이 잘도 읽는다  
방실방실 어린이 잘도 부른다.

이 작품은 『역대한국문법대계』 3-23(854쪽)에 실려 있다. 작자는 처음 맞는 (?) 가가날을 맞아 ‘한말’과 ‘한글’을 짝을 지음으로써 우리의 언어와 문자가 우수하고 배우기 쉽다는 사실을 한편의 동시로 형상화하였다.

그런데 주시경은 1911년 9월에는 ‘국어연구학회’를 ‘배달말글몸음’으로 바꾸어 이전의 ‘국어’가 사용되던 자리에 ‘배달말글’을 대치하고 괄호 안에 ‘朝鮮言文會’를 넣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국어연구학회는 국어를 연구할 목적으로 1908년에 창립하였는데 국권이 상실되면서는 학회의 이름을 ‘朝鮮言文會’로 바꿈으로써 조선의 언문을 실행하는 방면으로 학회의 성격을 바꾸었다. 이에 따라 ‘朝鮮言文會’를 고유어로 ‘배달말글몸음’이라고 하여 ‘朝鮮’에 대하여는 ‘배달’을, ‘言文’에 대하여는 ‘말글’을, ‘會’에 대하여는 ‘몸음’을 대응시켰다. 그러니까 조선의 언어와 문자를 아우르는 뜻으로 ‘배달말

글’을 선택한 것이다. 한편 1912년 3월 31일에 발부된 조선언문회 강습원 제1회 중과 수업증서에는 한 해 전에 사용하였던 ‘한말’을 버리고 ‘조선말’을 택하였다. 그리고 발행기관도 그전의 ‘(한)말익힘곳’과는 달리 ‘조선어강습원’으로 되어 있다. 일제 당국을 의식한 소치일 수 있다. 1911년에 개칭한 ‘배달말글몸음’은 1913년 3월 2일에 발부된 조선어강습원 제1회 졸업증서에서 실용되었다. 이런 문제는 내가 『한글모 죽보기』를 분석하여 『한국학보』 30(1983)에 기고하고 그 뒤 『통일시대의 語文問題』(길벗, 1995)에 옮겨 실은 「개화기의 국어연구단체와 국문보급운동」에서 소상히 밝힌 바 있다.

주시경은 이 무렵 유인본 『소리갈』에서 ‘한글’이라는 말을 썼다. 이 책은 발행연대를 추정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김민수 교수는 대체로 1912년경에 나온 것으로 추정하였다. 우선 ‘한글’이 사용된 부분을 인용해 보기로 한다.

이 소리갈은 이 한글로 말하였으나 이 까닭을 닐우어 어느 글이든지 보면 그 소리의 엇더함을 다 알리라.

(끝쪽, 밑줄—글쓴이가 칩).

위의 구절은 주시경이 『소리갈』을 한글로 집필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다. 사실 그 이전엔 나온 주시경의 저술들은 앞서 든 「한나라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한문혼용이었다. 내가 알기로는 위의 ‘한글’ 기록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앞의 이종일의 기록을 제외하고는 가장 이른 것으로 짐작된다.

『소리갈』에 이어 나온 ‘한글’ 기록은 1913년 3월 23일에 창립된 ‘한글모’에서 볼 수 있다. 지난 1982년에 발견된 『한글모 죽보기』의 「한글모세움몸음적발」(朝鮮言文會創立記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쉽게 풀어 쓴다.

임시총회를 사립 보성학교에서 열고 임시회장 주시경 선생이 승석(昇席)하다. 임시 서기가 인원을 점검하니 14인이었다. 주시경 선생이 다시 초정(草定)한 본회 규칙을 가부로 통과하자는 최현이씨 동이에 손흥원씨 재청으로 가결되어 무

애(無碍) 통과하다.

본회의 명칭을 「한글모」라 개칭하고 이 모음을 세움모음으로 하자는 이규영 씨 동의에 신명균씨 재청으로 가결되다.

1911년 9월에 개칭한 「배달말글모음」을 1913년 3월 2일의 졸업증서에서 한번만 사용하고 같은 달 23일에는 「한글모」로 바꾸었다. ‘한’은 직접적으로는 당시의 ‘朝鮮’에 대응하고 이전의 ‘大韓帝國’의 ‘韓’을 한글로 옮긴 것이다. 나는 앞서 든 글에서 위의 기록이 ‘한글’의 최고 사용기록이라고 말한 바 있으나 앞의 『소리갈』에 이은 세 번째 기록이요, 주시경으로서는 두 번째 기록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최초의 한글 기록이라고 하는 최남선의 『아이들보이』(1913. 9)에 나오는 기록은 네 번째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 잡지는 창간호를 볼 수 없다. 총 12권중 「한글풀이」난을 두고 있는 것은 7호(1914. 3)~11호(1914. 7. 5) 5권 뿐이다. 창간호가 발견되기까지는 『아이들보이』의 ‘한글’ 사용연대를 1914년 3월로 잡아야 한다.

주시경이 한국어문, 당시로는 조선언문을 표시하는 고유어로 ‘배달말글’ 대신에 ‘한글’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배달말글’이라는 말이 조선의 ‘言文’을 가리키기에는 음절이 너무 길고 그리고 ‘배달’이라는 말이 일반인에게 생소하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배달’이라는 말을 가지고서는 앞서 든 ‘大韓帝國’의 ‘韓’을 연상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말’(言)도 범위를 넓히면 ‘글’(文)을 포괄할 수 있고 그 역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글’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한다. ‘모’는 ‘모음’(會)에서 첫 자의 앞 부분 ‘모’를 딴 것이다. 현재 ‘한글’이라는 말로 국어를 지칭하는 일이 많은데 이는 태생에서 이미 그 씨앗이 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조선언문회를 지칭하는 ‘한글모’에 이어 1915년 3월에 발부된 각종 증서에는 ‘한글배곧’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었다. 주시경이 만든 것으로 짐작되는 각종 증서에 대하여는 글쓴이가 『주시경학보』 8(1991)에 기고한 「주시경 선생의 자작 동요와 ‘조선어강습원’의 각종 증서」(『통일시대의 語文問題』에 옮겨실음)에서 해독을 시험한 일이 있다.

이 곳에서 ‘한글’의 작명부와 관련하여 덧붙일 것은 한별 권덕규(權惠奎)의 증언이다. 권덕규는 조선어강습원 중등과를 거쳐 1913년 김두봉, 이병기, 신명균, 최현배 등과 함께 고등과를 마쳤으며(제1회), 1915년에는 조선어강습원 강사를 지내었다. 그리고 뒤에는 「周時經先生傳」을 쓰기도 하였고 『朝鮮語文經緯』(1923)을 내기도 하여 주시경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앞장을 서 온 문하생중의 한 사람이다. 지난 세기 80년대 중반에 권덕규의 『朝鮮語講座』란 새로운 저술이 발견되어 화제를 모은 일이 있다. 이 책은 1933년 경성방송국에서 낸 조선어방송교재였다. 안병희 교수는 『語文研究』 13권 2호(1985)에 기고한 「방송교재 ‘조선어강좌’에 대하여」에서 돌아가신 하동호 교수의 소장본과 자신의 소장본을 토대로 하여 ‘한글’의 작명에 얽힌 권덕규의 증언을 소개하고 그 나름의 해석을 가하였다. 안교수의 글에서 권덕규의 소견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역시 쉽게 풀어쓴다.

또한 근래에 잡지나 신문에 흔히 쓰는 것과 같이 ‘한글’이라 함은 조선 총독부 편찬의 『朝鮮語辭典』에도 쓰인 바 韓文을 조선말로 그냥 읽어 ‘한글’이라 한 것이요 韓文이라고 그냥 음대로 정음으로 쓰면 지나글 漢文과 음이 혼동될 혐의도 있어 이것도 피한 것이다.

위의 글을 통하여 우리는 ‘한글’의 처음 뜻이 ‘大. 一’이 아니라 ‘韓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권덕규의 증언과 같이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朝鮮語辭典』(1920)에는 ‘韓’의 名하위 표제어로 ‘韓文’을 두고 ‘韓文(한문)諺文(한글)에 同(동)과 같이 뜻을 달았다. 이는 ‘언문’과 같은 뜻으로 ‘韓文’이 당시에 사용되었음을 증언한다고 하겠다. 혼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세영의 『修正增補朝鮮語辭典』(1942)에도 ‘한문(韓文) 한글’과 같이 뜻을 달고 있다. 그보다 우리의 눈길을 모으는 것은 ‘韓文’으로 쓰면 ‘漢文’과 음의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여 ‘한글’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다.

권덕규는 주시경이 한창 활동할 나이에 배우기도 하였으며 더구나 당시의 우리말과 우리글을 고유어로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는가 하고 고민을 거듭하던 때여서 권덕규의 증언은 누구보다도 ‘한글’의 작명에 얽힌 당시의 사정을 잘 대변해 준다고 전해 준다고 하겠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시경은 ‘한나라말/ 한나라글 → 한말 → 배달말글’을 거쳐 ‘한글’에 이르는 작명과정을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전해 주고 있다. 더구나 권덕규의 증언은 ‘한글’로 낙착하기까지의 경위를 증언하였다는 점에서 ‘한글’의 작명부는 주시경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주시경보다 14년전에 이종일이 ‘한글’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비망록은 지난 세기 70년대 중반에 발견되었다. 앞에서 두어번 언급한 바 있듯이 이미 당시에 외국인들 사이에 ‘韓語’란 말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글 뒤의 [붙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두었다. 국어국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한말’과 ‘한글’을 지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의 권덕규의 증언과 관련시키면 박승빈의 최남선 소작설은 위증일 가능성이 더 짙어진다.

‘한글’의 작명부가 주시경이라는 점은 주시경의 작고를 전후하여 ‘한글’이 그의 후학들의 손으로 조직적으로 꾸준히 보급되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최남선과 김두봉이 보급에 앞장을 섰다.

최남선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시경이 살아 있을 때에 『아이들보이』에 「한글풀이」란 글을 두어 한글의 가로풀어쓰기를 보급하였거니와 「글꼬는기」라는 글을 두어 말짓기를 공모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글자수는 한글이 3백 20자 이내이니 한 칸에 한 자씩 똑똑하게 쓰시오”(제7호, 1914. 3)와 같이 원고 작성상의 주의사항을 배풀면서 ‘한글’이란 말을 사용하였다. 최남선은 주시경이 죽은 후에도 ‘한글’ 보급에 힘을 기울였다. 그는 1914년 12월 24일에 열렸던 “한글 472회 기념회”에서 「한글과 周時經先生」이라는 연제로 강연을 하였다. 당시의 강연 초록을 보면 최남선은 ‘한글’이라는 말을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새별』 16호(1915. 1)에 실려 있다.

최남선에 이어 김두봉이 ‘한글’ 보급에 기수 노릇을 하였다. 『청춘』

4(1915. 1)에는 실린 「한글 새로 쓰자는 말」이 실려 있는데 이는 내용과 문체를 고려할 때 김두봉의 글임이 틀림없다. 이 글은 『역대한국문법대계』 3-23에 실려 있다. 글의 제목에서 사용된 ‘한글’이 본문에서 다시 반복되어 있다. 내용은 주시경에 의하여 주장되던 가로풀어쓰기의 당위성을 주장한 글이다. 김두봉은 이어 『조선말본』(1916)의 「머리말」에서 ‘한글배곧어른 솔벗매’와 ‘한글모임자 한샘’의 권유로 위의 책을 저술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전자는 조선어강습원 원장 남형우를 가리키고 후자는 조선언문회회장 최남선을 가리킨다. 주시경에 의하여 이름이 확정된 강습기관 ‘한글배곧’과 연구단체 ‘한글모’가 김두봉에 의하여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후 ‘한글’은 이규영의 두 저술 『한글적새』, 『한글모 죽보기』에서 실천에 옮겨졌고, 같은 사람의 『현금조선문전』(1920)에는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뒤 책의 편성을 보면 「제1편 글씨(文字)」 아래에 「제1장 한글(正音)」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은 설명을 베풀었다.

한글은 흘탕소리로 된 綴音 文字니 알의 적음과 같음  
(원문대로, 밑줄은 글쓴이가 칩)

그로부터 2년 뒤 최현배는 동아일보에 기고한 「우리말과 글에 대하여」(23회 연재)에서 ‘언문’ 대신 ‘한글’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한글’이 한국문자의 고유명칭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단초를 열었다고 하겠다.

#### 4. 마무리

이상과 같이 나는 그 사이 제기된 ‘한글’의 작명부에 대한 견해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내가 1980년대 초에 세운 한글의 주시경 작명부설이 잘못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남광우 박사는 옥파(沃坡) 이종일이 ‘한글’의 최초의 작명부라 하였고 임흥빈 교수는 한글의 작명부는 주시경이 아니라 옥당 최남선이라고 하였으나 어느 하나도 주시경 소작설을 뒤

있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특히 권덕규의 증언은 오히려 주시경 작명부설을 굳혔다고 단정할 수 있다.

사실을 개별적으로 발견하여 이를 단순한 지식으로 묻어 두는 것과, 공동체를 통하여 부단히 체계화하여 독자적인 틀을 만드는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 독일의 언어학자 코세리우(E. Coseriu)는 19세기말에 활동하였던 언어학자 가벨렌츠(G. von Gabelentz)의 『언어학 — 과제와 방법, 그리고 성과』(Die Sprachwissenschaft, ihre Aufgabe, Methoden und bisherigen Ergebnisse)를 다시 발간함에 즈음하여 붙인 해설문(1972)에서 가벨렌츠가 소쉬르(F. de Saussure)보다 앞서서 랑그와 빠롤을 구별하고 공시언어학을 건설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언어학자들은 소쉬르를 구조언어학의 비조라 부르고 그로부터 현대언어학사를 엮어 가고 있으며 동시에 그의 인식체계를 바닥에 깔고 언어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김현권, 장재성, 최용호가 공동으로 번역한 『비판과 수용』(페르디낭 드 소쉬르 연구 제1권, 도서출판 역락, 2002)가 참고된다. 단편적인 사실의 발견이나 나열은 지식의 축적은 될지언정 그 자체가 학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학문은 고도의 인식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 곳에서 몇 가지 사실을 덧붙이고 한다. 앞에서 우리는 개화기에 종전의 ‘언문’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을 여러 가지로 고안하다가 결국은 ‘한글’로 낙착하였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별로 알려지지 않은 ‘본문’설을 소개하려고 한다. 1920년대 중반의 『東光』지상에는 ‘白定木’ 또는 ‘天民子’라는 필명을 가진 천재적 어학자가 몇 편의 글을 기고한 일이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현재로는 알 수 없지만 국어의 모음체계를 다시 편성하고 중세어의 ‘일흠’과 ‘일꼴-’을 서로 관련시켜 ‘일’과 ‘음, 곁’으로 분석한 것은 지금 보아도 조금도 흠이 없는 어원론이다. 이어 그는 우리글의 명칭으로 ‘언문, 본문, 정음’의 셋을 들고 그중 ‘본문’(本文)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다. ‘정음’(正音)은 귀족 중심적인 용어로, ‘본문’은 민중 중심적인 용어로 보았다. ‘본문’을 제안한 백정목의 견해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는 못하였지만 명명



의 근거를 분명하게 낸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진호 박사가 「다시 찾는 두 어학자」란 글을 『형태론』 2권 2호에 기고한 일이 있어 도움이 된다.

북한과 옛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한글문자를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

북한은 1948년까지는 ‘한글’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1947년에 나온 김중오의 『한글독본』에는 「한글을 배우자」, 「‘한글’의 뜻」, 「‘한글’의 이름」 등 ‘한글’을 앞세운 단원들이 많다. 그러나 1948년 1월에 공포된 『조선어신철법』에는 ‘朝鮮語 字母’라 불렀다. 이는 통일안의 ‘한글 字母’를 바꾼 말이다. 신철자법에 ‘한글’이 자취를 감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문법 교과서에는 여전히 ‘한글’이 사용되고 있었다. 1949년에 나온 박상준의 『조선어문법』에는 ‘한글 자모’란 말이 나온다. 이 책은 1947년에 초판이 나온 것으로 짐작되는데 초판의 지형을 그대로 이용한 데 말미암는다. 그러나 서광순의 인민학교용 『국어문법』(1949)에는 ‘조선어의 자모’로 되어 있다. 북한 최초의 어문학 잡지 『조선어연구』 2호(1949. 5월호)에 ‘한글의 나아갈 길’이라는 권두언이 나오는 것을 보면 종전의 ‘한글’이 아직도 뿌리가 박혀 있음을 실감케 한다. 특히 『조선어철자법』(1954)의 공포 이후로는 ‘한글’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예를 찾을 수 없다. 그것은 ‘한글’의 ‘한’이 대한민국의 ‘韓’과 일치하기 때문에 피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언어학사전』 2(1986)과 앞서든 『조선말대사전』에서도 ‘한글’을 적극적으로 되살려 사용하는 기운을 볼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점 중국의 한인사회도 차이가 없다.

『高麗文典』(1930)을 보면 옛 소련 지역에서는 한국문자를 ‘國字’라 불렀다. ‘문자’라는 포괄적인 용어 밑에 ‘漢字’와 이에 대가 되는 ‘國字’를 두었다. ‘한글’을 택하지 않은 것은 당시 ‘한글’이 언어규범에 등장할 정도로 보편화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들은 한국문자가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지역은 원동(연해주-글쓴이)뿐이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계봉우의 『조선문법』 2권(1948)에는 한국의 문자를 ‘정음’이라 불렀다. 김병화 황윤준의 『조선어교과서』(1954)에는 조선어를 대표하여 쓰

는 문자를 ‘한글’ 혹은 ‘국문’이라고 소개만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흔적이 없다. 그러나 이책의 정정재판(1957)에서는 북한의 『조선어철자법』을 따라서인지 ‘한글’이란 말을 버리고 ‘조선어의 자모’라 불렀다.

지난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옛 사회주의 국가와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남한에서 제작한 한국어교과서가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 옛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한글’이라는 말이 그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다. 우리가 ‘한글’에 얽힌 뒷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이를 국제화시키는 데 지혜를 모은다면 세계화의 길을 앞당길 수 있고 그것은 바로 국력을 신장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끝으로 19세기 후반부터 지난 세기 80년대 말까지 한국문자와 한국어에 대하여 부여된 명칭을 연대순으로 나열하여 참고에 이바지한다.

[붙임] 한국의 언어·문자의 명칭에 관련된 자료(1880~1988)\*

\* 고딕체는 글쓴이가 표시한 것임.

- 1880. 11. **韓語**入門(寶迫繁勝)
- 1894. 11. 法律勅令總以**國文**爲本.....(고종 칙령)
- 1895. 5. 法律勅令은 다 **國文**으로서 본을 삼고(고종의 개정 칙령)
- 1898. 7. 然則**한글**專用爲主發刊決定也矣, 純國文(**한글**)(이종일의 『목암비망록』)
- 1902. 5. 實用**韓語**學(島井浩)
- 1906. 6. 우리나라글/ 국문/ 우리나라말/ **우리말**의 71 종성(주시경의 『대한국어문법』 8, 12, 8, 10, 43쪽)
- 1906. 6. 韓語(安泳中)
- 1909. 5. **韓語**通(前間恭作)
- 1909. 6. **韓語**文典(高橋)亨)
- 1910. 6. 한나라말/ 한나라글/ 우리나라말/ 우리나라글(보충친목회보)
- 1911. 4. 1. **한말**의힘곳침(국어연구학회 제2회 졸업증서의 인장)
- 1911. 9. 國語研究學會를 **배달말**글문음(朝鮮言文會)라 하고(『한글모 죽보기』 연혁)
- 1912(?). 이 소리같은 이 **한글**로 말하였으나...(주시경의 『소리갈』의 5장 뒤의 끝부분)

1913. 3. 2. **배달말글**모듬 서울온모듬서(조선언문회 강습원 제1회졸업증서)
1913. 3. 본회의 명칭을 **한글**모라 개칭하고...(『한글모 죽보기』의 연혁)
1913. 9. **한글**풀이(『아이들보이』 창간호)
1914. 3. **한글**풀이, 글자수는 **한글**이...(『아이들보이』 7호)
1914. 4. 우리글/ 우리말(『말의 소리』 夾入 ㄴ 뒤)
1914. 12. 24. **한글** 472회 기념회, 최남선의 「한글과 周時經 先生」
1915. 1. 「**한글** 새로 쓰자는 말」(김두봉 ?, 『青春』 4).
1915. 1. 우리글씨(김두봉 ?, 『青春』 4)
1915. 3. **한글**배곧(『한글모 죽보기』의 수업증서, 우등증, 근만증)
1916. 4. **한글**배곧어른 솔벗되/ **한글**모 임자 한샘(김두봉의 『조선말본』의 「머리말」)
- 1918~1919?. 『**한글**모 죽보기』(이규영 편).
- 1916~1919?. 『**한글**적새』(이규영 편)
1920. 7. **한글**은 홀당소리로 된.....(이규영, 『현금조선문전』 1쪽)
1920. 12. 韓文(조선총독부편 『朝鮮語辭典』 918쪽)
- 1922, 8~9. ....한글/ 우리글/ 우리말.....(최현배, 「우리말과 글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3. 8. **우리글**자의 초서(리필수, 『정음문전』)
1926. 9(?). 한말/ 한글(조종현의 동시 「한말 한글」 출전 미상)
1926. 11. 朝鮮文字를 本文이라 하라(백정목, 『동광』 7).
1926. 12. **한글**의 연구/正音文法研究欄(『동광』 8)
1927. 1. **우리글** 表記例의 몇몇(『동광』 9)
1927. 1~8. **한글** 토론, 『동광』 9~14
1927. 7. 조선말/조선글/한글(正音)(동인지 『한글』 첨내는말)
1928. 1. **우리글**의 변천(김윤경, 『한빛』 1)
1929. 9. 우리글/ 한글(이윤재, 「한글강의」 『신생』 9)
1930. **고려어**교원, 國字는 그 創作初.....(『高麗文典』, 緒言, 6쪽)
1931. 7. **朝鮮語**의 音子(박승빈, 『朝鮮語學講義要旨』 9쪽)
1932. **우리글**—**한글**은 소리가 갖고 모양이 곱고.....(이윤재, 한글을 처음 내면서)
1933. 10. 29. **한글**의 자모의 수는.....(『한글마춤법통일안』, 朝鮮語學會)
1937. 8. 朝鮮語音을 記寫할 文字 卽 **朝鮮子母**는.....(박승빈, 『簡易朝鮮語文法』)

- 1948. 1. **朝鮮語 字母**의 수는 .....(『조선어신철자법』 제1항)
- 1954. 9. **조선어** 철자법은.....**조선어 자모**의 순서와 그 이름은.....(『조선어 철자』총칙, 제1항)
- 1955. 2. 배달겨레의 말을 **배달말**이라 하여(최현배, 고친 『우리말본』 34쪽)
- 1966. 6. **조선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조선말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은.....(『조선말규범집』 총칙, 제1항)
- 1985. 1. **조선말** 맞춤법은...../ **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은..... (『조선말규범집』, 연변인민출판사)
- 1987. 5. **조선말** 맞춤법.....**조선어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은.....(새판 『조선말규범집』)
- 1988. 6. **한글** 자모의 수는.....(『한글 맞춤법 해설』, 국어연구소)